무등산, 대자연의 숨결 담은 작가의 투박한 붓놀림

'무등산 사계-수묵으로 …' 展

김용준 화백, 소암미술관 전시
한국 남종화 맥 잇는 대표화가
사계절 담아낸 수묵화 20여점

김용준 작 '무등산 수묵하경'. 소암미술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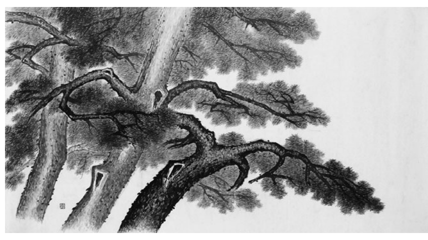
수묵으로 대자연의 숨결이 피어난다. 남농 허건의 제자로 알려진 금당 김용준 화백의 손끝에서 탄생한 수묵의 세계가 소암미술관에서 펼쳐진다.

다음달 18일까지 광주 남구 소암미술관 제1·2전시실에서 열리는 '무등산 사계 - 수묵으로 피어나는 대자연의 숨결' 전이다.

이번 전시는 김 화백이 투박하고 괴력 있는 붓놀림으로 담아낸 수묵 20여점을 선보이는 자리다. 전시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무등산 대자연의 숨결을 사계절의 변화에 담아 수묵으로 풀어냈다.

소암미술관이 올해 첫 전시로 이번 전시를 기획한 이유는 만물이 소생하는 을사년을 무등산으로 더욱 조명하기 위해서다. 광주, 담양, 화순에 걸쳐 있는 국립공원 무등산은 서석대와 입석대, 광석대 등 주상절리를 포함한 기암괴석들이 태고(太古)한 공간이자 다양한 동물과 식물, 사찰과 누정, 문화재 등의 터전이다. 이처럼 수많은 생명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까지 변화 속에서도 모든 것을 포용하며 견뎌온 긴 역사를 간직한 곳이 무등산이다.

예로부터 광주·전남을 예향이라고 부르듯 시대별로 이름 높은 시인 묵객들도 많이 배출됐다. 전통적으로 호남지역에는 시(詩)·서(書)·화(畵)가 풍성하게 꽃을 피웠는데 특히, 조선 말기 시·서·화·인(印)의 대가 추사 김정희의 제자 소치 허련으로부터 시작된 진도 운림산방(雲林山房)의 남종화는 미산 허형, 의재 허백련, 남농 허건에 이르기까지 한국 남종화의 맥을 이어왔다는 평가다.



'무등산 노송'.

'무등산 춘경'.

금당 김용준은 이같은 남종화의 유산을 이어받아 수묵산수화를 개척해 온 지역의 대표적인 화가로 꼽힌다. 1956년 진도에서 태어난 그는 20대에 남종화의 대가 남농 허건으로부터 전통 남종화풍을 사사한 뒤 묵향에 50여년의 세월을 쌓아 왔다.

이번 전시를 통해 그는 무등산을 바라보며 화업을 이어오게 된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도심 가까이에 자리한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고(寶庫)이자 유산인 무등산의 모습을 심도 있게 재조명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전망이다.

정동화 소암미술관 학예연구사는 "이번 전시에서 무등산의 사계를 금당 김용준 화백의 손길에서 그려낸 수묵 작품들을 선보인다"며 "많은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아 남종화의 명맥을 이어 오고 있는 김 화백의 화업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모두를 감싸다… 제1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EIP 발표

열린 가능성 '포용' 형상화
8월30일부터 65일간 개최

올해 하반기 개최되는 제1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의 EIP(Event Identity Program)가 공개됐다.

20일 (재)광주비엔날레에 따르면 제1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모두를 대상으로 최대한의 가능성을 담보하는 포용디자인(Inclusive design)을 주제로 한다. 이러한 주제를 형상화한 EIP는 포용디자인의 의미를 보자기와 연결해 모든 것을 넓게 받아들이는 '포용지덕(包容之德)' 글자 각각을 보자기로 감싼 4개의 오브제로 표현했다. 천이 유연하게 변형되며 만들어진 주름과 곡선은 빛의 스펙트럼처럼 확장돼 네 가지 색으로 자리한다. 이같은 형태는 디자인으로 서로 다른 우리를 감싸고, 연결하며, 함께 '너라는 세계'를 만들어 가는 모습을 담았다. 각각의 존재가 이어져 만들어지는 포용의 순간이자 포용디자인의 출발점을 상징한다.

제1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EIP는 브랜드, 패키지, 공간, 웹 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 작업을 해온 작준 스튜디오가 개발했다.

한편 제1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오는 8월30일부터 11월2일까지 65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개최된다. 박찬 기자

광주영화학교 출신인 이예은 감독의 '베이비!'가 제42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한국경쟁부문에 공식 초청됐다. 사진은 영화 '베이비!'의 한 장면.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 제공

"광주서도 뛰어난 영화 제작할 수 있다는 방증"

'베이비!' 국제영화제 출품 쾌거
광주영화학교 출신 이예은 감독작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한국경쟁부문

광주영화학교 출신의 이예은 감독이 연출한 '베이비!'에 영화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는 이예은 감독의 '베이비!'가 제42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한국경쟁부문에 공식 초청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감독은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운영하는 제1기 광주영화학교 단편영화 제작워크숍을 통해 광주의 차세대 영화감독으로 성장하고 있는 신예다.

작품 '베이비!'는 지난 2023년 광주영화학교 워크숍 작품인 'ZIP!'에 이은 그의 두 번째 작품으로 광주독립영화제 고릴라펀드 지원작으로 선정돼 지난해 제작한 작품이다.

작품에서 히키코모리인 주인공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과정을 섬세한 심리묘사를 통해 끌어내 탄탄한 서사와 독특한 앵글로 단편영화의 묘미를 살렸다고 호평받았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경쟁 부문 최우수작품상 수상작이 자동으로 미국 아카데미영화제 단편에 초청되는 오스카 인증 영화제로 세계적인 단편영화제로 꼽힌다. 이번 제42회 영화제에는 121개국 5350편이 출품됐으며 이 감독의 '베이비!'는 한국경쟁부문 20편 중 한편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영화 '베이비!'는 이번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서 오는 24일 오전 11시, 26일 오후 5시에 각각 상영된다.

이상훈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 이사장은 "이번 성과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광주영화학교의 결실임과 동시에 광주에서도 영화를 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영화학교는 영화 관련 학과가 없는 열악한 광주에서 영화 제작의 꿈을 키우는 청년들을 위해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개설한 교육과정이다. 2018년부터 시작돼 현재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올해는 5월 중에 개강 예정이다. 박찬 기자

봄부터 가을까지 야간 명소를 수놓는 '공연예술의 향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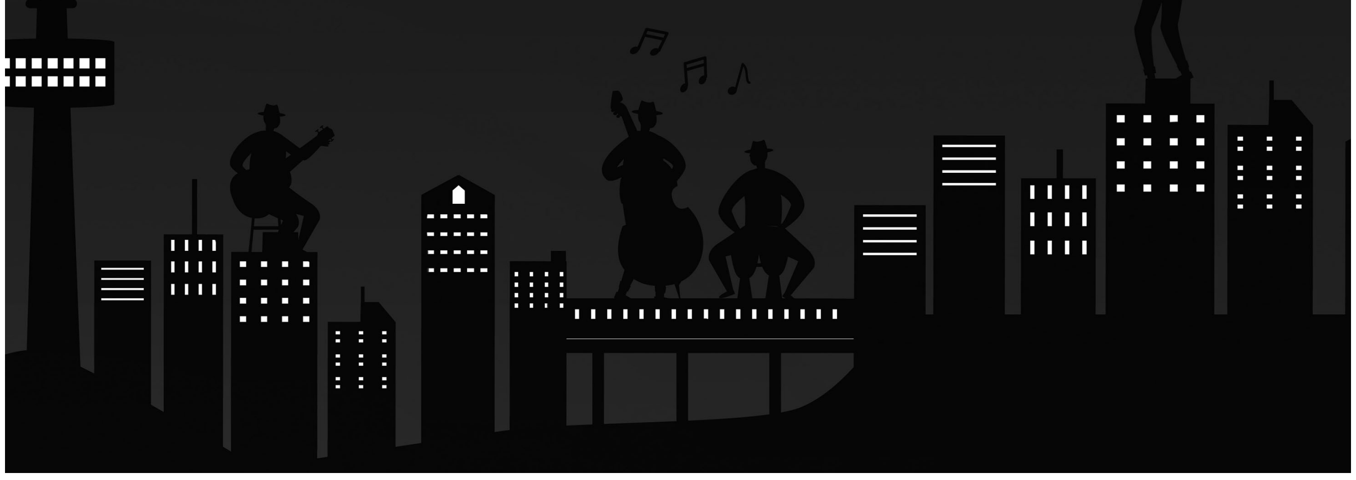
동구문화관광재단, '빛의 소리'
빛의 읍성·분수서 다양한 장르
지난 18일 개최… 9월까지 총 6회

광주 동구의 대표 야간 명소에서 특별한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광주 동구문화관광재단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빛의 읍성과 빛의 분수에서 야간 명소 특화 공연 '빛의 소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2025 거리예술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돼 광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가 월별로 재즈, 탱고, 마당극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지난 18일 오후 6시 열린 첫 공연을 시작으로 9월까지 총 6회 운영된다.

문창현 동구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우리 지역 대표 야간 명소인 빛의 분수와 빛의 읍성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생활권 내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문화관광재단은 올해 동구의 9가지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동구 보물탐험대 2기(동구 특화 문화예술 교육 사업)'와 천원식당, 쪽방촌, 문화소외계층 가정 등을 지역 문화예술인과 함께 방문해 공연을 진행하는 '문화보따리(문화소외계층향유지원 사업)' 등 미래세대,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진흥 사업을 매달 운영할 방침이다. 박찬 기자